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리질리언스 및 주관적 행복감

이종근¹, 김종경^{2*}

¹공주대학교 간호학과, ²김천대학교 간호학과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resilience, and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ung-Geun Lee¹, Jung Kyoung Kim^{2*}

¹Department of Nursing, KongJu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Gimcheon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리질리언스 및 주관적 행복감 정도를 알아보고,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일부 지역 간호대학생 204명이었고, 자료분석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리질리언스 및 주관적 행복감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t-test, ANOVA 분석을 하였고,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과 리질리언스는 학년과 학과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행복감은 학과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리질리언스, 주관적 행복감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리질리언스는 주관적 행복감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학년과 학과만족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2.4%이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을 위해 학년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학과 만족도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degree of self-esteem, resilience, and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to establish strategies to improve their subjective happiness. The study subjects included 204 nursing students, and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t-test, and ANOVA analysis to determine self-esteem, resilience, and subjective happi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Pearson's correlation was used for correlation. Factors affecting subjective happiness were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Study results found that self-esteem and resilience had an effect on grade level and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ubjective happiness had an effect on department satisfaction. In addition, self-esteem was found to be correlated with resilience and subjective happiness, and resilience was found to be correlated with subjective happiness. As a result of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grade and subject satisfaction were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for each grade for the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and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establish and apply strategies and plans for satisfaction with the department.

Keywords : Resilience, Self-Esteem, Subjective Happiness, Nursing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본 논문은 2020년 김천대학교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gc-20030).

*Corresponding Author : Jung-Kyoung Kim(Gimcheon Univ.)

email: jj2c@nate.com

Received February 8, 2021

Revised March 8, 2021

Accepted May 7, 2021

Published May 31, 2021

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대학 입시 위주의 수동적인 학습을 하면서 대학교 입학 이후 학생 스스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춘 생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학 입학 또한 개인의 적성이나 관심 영역 이외의 취업이나, 성적, 주변의 요구로 인한 진학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간호학과 높은 취업률로 인해 타 학과보다 경쟁률이 높으며 인력난으로 인해 정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1]. 이로 인해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취업, 주변의 요구에 따른 수동적으로 학교로 입학하게 되고, 이러한 학생들은 간호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진학하여 전공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가 낮아 대학생활에 적응과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2].

자아존중감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 내리는 평가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존경하며, 행동을 결정할 때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3].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다양한 사회화 과정에서 시련, 위기, 고난, 역경 등을 겪을 때 이러한 어려움을 잘 대처한다. 또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며, 주위환경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가진다[4]. 대학생의 경우 학창시절을 긍정적으로 보낼 경우 졸업 이후 사회화 적응과 업무만족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 여기에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도움이 되지만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대학생활에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며, 정체감을 가질 수 있다[5]. 또한 인간의 사회적 적응과 목표달성 등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자신이 어떻게 생활을 보낼지에 대한 판단과도 연결 될 수 있다[6].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전략은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더불어 졸업 후 임상에서 업무 적응과 업무 만족을 높여 전문직 의료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7].

자아존중감을 이해하고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효율적인 스트레스관리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의 스트레스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리질리언스 강화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리질리언스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적절한 자아통제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대응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8]. 리질리언스의 과정은 일상생활에 대한 적응과 이에 따른 기능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상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9]. 간호대학생에게 리질리언스는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리질리언스가 강화되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10].

스트레스의 경우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간호대학생은 특히 많은 학업량과 임상실습에 따른 긴장감 등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관적 행복감은 개인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총체적인 감정으로 지각된 행복감을 의미하고, 이러한 감정은 주관적 안녕감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11].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개인의 행동에 자율적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주변 환경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며 자신의 삶의 목표가 뚜렷하게 잡혀 잠재력을 실현 시킬 수 있다[12]. 또한 주관적 행복감은 간호대학생들의 개별적, 총체적인 돌봄 자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13].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리질리언스 및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간호대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리질리언스 및 주관적 행복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리질리언스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10월 12일에서 2020년 10월 16일까지 D 광역시 소재의 2개 4년제 대학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모집에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의사는 자발적 서면동의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자들에게는 연구 도중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설명하였다. 총 210명의 응답자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는 204명 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3]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을 Jeon(1974)[14]이 번안한 자아존중감척도를 사

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scale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으로 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10점 최고 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Jeon(197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5$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2.3.2 리질리언스

리질리언스는 Connor & Davison(2003)[15]의 Connor & 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을 변안하여 Baek(2010)[16]이 타당화한 한국형 코너-데이비드슨 리질리언스 척도(K-CD-RISC)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25문항으로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scale 4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리질리언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Baek(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 의 신뢰도를 보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5$ 이었다.

2.3.3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은 Lyubomirsky과 Lepper(1999)[17]가 개발한 Subjective Happiness Scale을 Kim(2006)[18]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개의 문항에 7점 Likert scale 최저1점에서 최고 7점으로 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4점 28점까지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Lyubomirsky과 Lepper(199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6$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2)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리질리언스 및 주관적 행복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3)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리질리언스 및 주관적 행복감은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4) 자아존중감, 리질리언스 및 주관적 행복감간의 상

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5)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자아존중감, 리질리언스 및 주관적 행복감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학년, 학과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학년은 1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F=3.978$, $p=.009$). 학과 만족도는 매우 나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F=5.950$, $p=.001$). 리질리언스는 학년, 학과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학년은 4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F=3.378$, $p<.019$), 학과 만족도는 '매우 나쁨' 가장 낮고 '나쁨'과 ' 좋음'이 중간으로 나타났고 '매우 좋음'이 가장 높은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F=16.137$, $p=.000$). 주관적 행복감은 '매우 나쁨' 가장 낮고 '나쁨'과 ' 좋음'이 중간으로 나타났고 '매우 좋음'이 가장 높은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3.731$, $p=.000$).(Table 1).

3.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리질리언스 및 주관적 행복감 정도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4점 만점에 평균 3.17점이었고, 리질리언스는 4점 만점에 평균 2.87점 이었으며, 주관적 행복감은 7점 만점에 평균 5.15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Nursing students' self-esteem, resilience and subjective happiness

	Mean±SD	Range
Self-Esteem	3.17±.55	1~4
Resilience	2.87±.69	0~4
Subjective Happiness	5.13±1.02	1~7

Table 1. Differences between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ability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20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lf-Esteem		Resilience		Subjective Happiness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Male	39(19.1)	3.07±.53	-1.225 (.222)	2.91±.66	.395 (.693)	5.30±1.12	1.195 (.272)
	Female	165(80.9)	2.91±.55		2.86±.70		5.08±1.00	
Degree	1-year ^a	73(35.8)	3.13±.48	3.978 (.009) a(b,c,d)	2.67±.50	3.378 (.019) a,b,c<d	5.28±.99	1.590 (.193)
	2-year ^b	36(17.6)	3.00±.58		2.96±.70		5.20±.96	
	3-year ^c	65(37.9)	3.45±.58		2.97±.83		4.91±1.15	
	4-year ^d	30(14.7)	3.17±.55		3.04±.68		5.13±.83	
Religion	Christian	35(17.2)	3.27±.50	1.520 (.210)	3.07±.73	1.237 (.297)	5.22±1.27	.262 (.853)
	Catholic	20(9.8)	2.96±.56		2.86±.67		5.17±1.19	
	Buddhism	4(2.0)	2.97±.78		2.96±.64		4.81±.37	
	Other	144(70.6)	3.18±.55		2.82±.68		5.11±.95	
Academic performance (score)	4.0≤	34(16.7)	3.11±.57	.159 (.924)	2.88±.74	1.156 (.328)	4.89±1.06	2.889 (0.37)
	3.0~3.9	154(75.5)	3.18±.54		2.84±.69		5.12±1.02	
	2.0~2.9	15(7.4)	3.18±.59		3.08±.50		5.6171	
	1.9≥	1(0.5)	3.20±.00		2.87±.00		7.00±.00	
Major Satisfaction	Bad ^a	7(3.4)	2.72±.81	5.950 (.001) a(b,c,d)	2.41±1.03	16.137 (.000) a(b,c<d)	3.96±.60	13.731 (.000) a(b,c<d)
	Nor bad ^b	102(50.0)	3.06±.47		2.64±.62		4.85±1.01	
	Good ^c	81(39.7)	3.29±.56		3.05±.59		5.41±.77	
	Very Good ^d	14(6.9)	3.46±.60		3.71±.61		6.08±.94	
Motive	Employment	90(44.1)	3.16±.53	2.094 (.102)	2.81±.64	3.177 (0.25)	5.08±.94	1.762 (.156)
	Recommendation	44(21.6)	3.01±.52		2.72±.75		4.92±1.20	
	Aptitude	65(31.9)	3.28±.57		3.08±.68		5.35±.96	
	Other	5(2.5)	3.14±.61		2.60±.64		4.85±1.42	

*a, **b, ***c, ****d

3.3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대처, 대학 생활 적응과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리질리언스($r=.569, p<.001$), 주관적 행복감($r=.355,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질리언스와 주관적 행복감($r=.355, p<.001$)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resilience and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Self-Esteem	Resilience	Subjective Happiness
Self-Esteem	1		
Resilience	.596 ($<.001$)	1	
Subjective Happiness	.355 ($<.001$)	.465 ($<.001$)	1

3.4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난 학년과 대학생 생활 만족도를 설정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분석결과 Durbin-Watson 통계량 1.774으로 2에 가깝고 0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의 독립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모두 1.0 이하의 값이었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모두 1점대로 기준치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년($\beta=-.949, p=.000$), 학교생활 만족($\beta=1.776, p=.000$), 자아존중감($\beta=1.03, p=.059$), 리질리언스($\beta=0.71, p=.000$)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설명력은 32.4%였다(Table 4).

Table 4. Factors affecting job performance ability

Spec.	B	SE	β	t	p
Constant	8.064	1.647		4.895	.000
Degree	-.949	.223	-.254	-4.259	.000
Major Satisfaction	1.776	.392	.292	4.528	.000
Self-Esteem	.103	0.54	.137	1.899	.059
Resilience	.071	.018	.302	3.922	.000
Adjusted R ² =.324 F=25.270(p <.001)					

4.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리질리언스 및 주관적 행복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리질리언스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여주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년, 대학생활 만족도, 자아존중 및 리질리언스가 있었고, 이들 요인은 주관적 행복감의 32.4%를 설명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 리질리언스 및 주관적 행복감과의 상관관계에서도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40점 만점에 평균 31.70점으로 이는 Ji 등[19]이 다른 도구를 이용한 선행연구에서 32점 만점에 24.32점으로 나타나 본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학년이 올라가고 대학생활에 만족할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Kim 등[20]의 연구에서 학년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 주는 결과이다. 또한 Nam 등 [21]은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학업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우울을 높하게 되고, 졸업 이후 업무에 불만족을 느끼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간호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있어 자아존중감, 리질리언스 및 주관적인 행복감을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리질리언스는 100점 만점에 평균 71.86점으로 Kim 등[22]의 연구에서 58.26점과 Kim[23] 연구에서 60.16점보다 높은 결과였다. 이는 Kim 등[22]과 Kim[23]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가 대학병원 간호사와 중환자실 간호사로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들과는 다른 대상자들 간의 특성 차이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 결과 리질리언스의 점수가 선행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리질리언스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성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 실무를 담당하기 전인 간호대학생들에게 리질리언스를 높일 수 있는 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리질리언스는 학년이 올라가고 대학생활에 만족할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Kim 등[20]의 연구에서 3학년보다 4학년이 리질리언스가 높았던 결과와 일치하였지만 Jang[24]은 3학년이 4학년보다 리질리언스가 높게 나타나 학년에 따른 리질리언스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주관적 행복감은 28점 만점에 평균 20.52점으로 Lee 등[25]의 연구에서 18.78점과 Park[26]의 연구에서 19.91점보다 높은 결과였으나 Park 등[27]의 연구에서의 21.15점보다 낮은 결과였다. 이는 Park 등[27]연구 대상자는 남자 간호대학생으로 상대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자아존중감과 리질리언스가 높아서 일어난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차이 비교에서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 연구인 Lee 등[25]과 Park[2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내적 요인인 자아존중감, 리질리언스등이 주관적 행복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추후 외적 요인과 내적요인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자아존중감과 리질리언스를 동시에 공려한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D 광역시 소재의 2개 4년제 대학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 추후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 리질리언스, 주관적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학생 지도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H. S. Lee, S. M. Ahn, "The Influence of Learning

- Self-efficacy, Confidence in Performance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and Satisfaction with Practicum on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in majo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4), 251-262, 2020. DOI: <https://doi.org/10.15268/ksim.2019.7.1.135>
- [2] K. N. Kim, E. H. Kang,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ppearance Satisfaction in Major on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3), 80-88,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3.80>
- [3] M. Rosenberg,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 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1965.
- [4] M. Cecily, P. White, "Irish nursing students' changing self-esteem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during their pre registration programm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2), 390-401, 2003. DOI: <https://doi.org/10.1046/j.1365-2648.2003.02631.x>
- [5] H. Jo, K. Y. Lee,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2), 163-173, 2006.
- [6] A. K. Han, *A Study on Professional Attitud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Annual Bulletin of Seoul Health Junior College, 14, 149-148, 1994.
- [7] S. K. LE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sexual contacts and self-esteem, self-assertiveness of teenage girls who have or had boyfriend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7(2), 212-228, 2001.
- [8] J. Block,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199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70.2.349>
- [9] A. S. Masten, *Introduction to Disability Studies*, An Instruction to Disability Studies, 2001.
- [10] S. E. Jung, J.E. H. Chae, "A Review of Resilience Assessment Tools", *Journal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9(1), 50-57, 2010.
- [11] H. J. Kim, *The Influence of Positive Emotion, Flow and Meaning in Life of University Students' upon their Happiness*,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eimyun University, Daegu. Korea, 30-45, 2009.
- [12] C. D. Ryff,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Science*, 57(6), 1069-1081, 1989.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7.6.1069>
- [13] D. Flaming, "Using phronesis instead of 'research-based practice' as the guiding light for nursing practice" *Nursing Philosophy*, 2:251-258, 2001. DOI: <https://doi.org/10.1046/j.1466-769x.2000.00066.x>
- [14] B. J. Je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 ability", *Yonsei University of Journal*, 11, 107-124, 1974.
- [15] K. M. Connor, J. R. T. Davison,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18(2), 76-82, 2003.
- [16] H. S. Baek,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K-CD-RISC)*.Departe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of Eulji University, DaeJeon. Korea, 2010.
- [17] M. S. Lyubo, H. S. Lepper,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 137-155, 1999.
- [18] I. J. Kim, *Positivepsychology*, Seoul: Mulpure, 2006.
- [19] Y. J. Ji, K. N. Kim, "Factors influencing resilience of a nursing college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12), 19-27, 2016.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12.09>
- [20] J. K. Kim, K. H. Yoo, "Effects of Self-esteem on Nursing Students' Resilience", *Journal Muscle Jt Health*, 26(3), 261-269, 2019. DOI: <https://doi.org/10.5953/JMJH.2019.26.3.261>
- [21] M. H. Nam, M. R. Lee,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self-esteem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profess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4), 527-536, 2016.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6.22.4.527>
- [22] B. N. Kim, H. S. Oh, Y. S. Park, "A Study of Nurses' Resilience, Occupational Stress and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1), 14-23, 2011. DOI: <https://doi.org/10.5807/KJOHN.2011.20.1.014>
- [23] S. N. Ksim, *Relationships between ICU Nurses' Resilience,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won. Korea, 2014.
- [24] S. Y. Jang, "Influence of stress and resilience on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30(3), 1075-1088, 2018.
- [25] S. H. Lee, B. Y. Chung, S. H. Kim, "Influence on subjective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9(1), 115-126, 2015. DOI: <https://doi.org/10.5932/JKPHN.2015.29.1.115>
- [26] M. S. Park.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Stress and Self Esteem on Subjective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4), 395-402,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4.395>

- [27] J. H. Park, G. Y. Jo, "Predictors of subjective happiness for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7(2), 511-522, 2016.
DOI: <http://dx.doi.org/10.7465/jkdi.2016.27.2.511>

이 중 근(Jung-Geun Lee)

[정회원]



- 2016년 2월 :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석사)
- 2021년 2월 :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8년 3월 ~ 2019년 2월 : 영남외국어대학 간호학과 교수
- 2019년 3월 ~ 2020년 2월 :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삶의 질, 간호대학생

김 중 경(Jung-Kyung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석사)
- 2017년 8월 :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2017년 2월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 간호관리학, 시뮬레이션 교육, 삶의 질